

출판량 절대감소 '불황 불보듯'

MF한파속에서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곳이 불교출판계다. 가뜩이나 열악하고 시장도 빈약한 불교출판계는 제작비가 엄청나게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책값을 올릴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호소하고 있다.

출판량을 지난해에 비해 30%이상 줄이는 등 불황속에서도 힘겹게 불교출판의 꽃을 피우려는 각 출판사들의 울며 계획을 들어본다.

민족사(사장 윤창화)는 올해 출판량을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였다. 그러나 제반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가벼워진 주머니사정을 감안해 책값은 현재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말 출간될 <설법, 그 이론과 실제>(정순일)를 필두로 <불보살명호이야기>(이운수),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한기문), <한국근대 불교의 현실인식>(김광식) 등과 작은책시리즈 <선학7행>(정병조), <불교사>(이봉춘), <속도장정>(조홍운) 등 20여권을 출간하게 된다.

98 불교출판계 전망

제작비 상승 '속수무책'
원가절감 등 자구책 골몰
양서 위주 발간 '돌파구'

대원정사(사장 장상건)는 앞으로의 경제사정에서 전년 대비 최대 50%이상 출판량을 축소할 예정이다. 고은씨의 소설 <수미산>이 초과일 경에, 원옥숙님의 <포교당일기>가 올해 말경 선보인다. 그밖에 <교양불교>(가제) 2권과 <백문백답시리즈> <종교대화시리즈> 등이 출간될 예정이다. 대원정사는 또한 불교교육원 협회와 함께 펴낸 중학교 검정종교교과서를

1월말 경에 새 모습으로 출판한다. 이 검정종교교과서는 새학기부터 정식교과서로 채택된다.

불광출판사(사장 권덕)는 평균 한달반에 1권 정도의 불서를 출간하게 된다. <불실관무량수경>(공파이) 1월말에 출간되고, <유마경강설>(김귀추)이 3월중 <하동산님 문집>, <신도포교지침서>(성일), <이념 칼럼집(가제)> <정법안장>(보광) <백암록>(봉광) 등이 올해 선보일 책들이다. 또한 스테디셀러로서 자리매김한 무비스님의 <금강경오가해> 등의 홍보와 판매에도 역점을 둔다.

우리출판사(사장 무구)는 <약사경>(법정), <신역금강경>(정용수), <원혜스님 수상집>(가제) <TV동요보감> 등 수상집, 경전, 건강서 출간에 주력할 계획이다. 출판량은 지난해 보다 20% 정도 줄일 예정이지만 책값은 인상하지 않는 선에서 제반비용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효림(사장 김현준)은 불교신행연구원의 월간지 <법공양>의 연재내용을 모아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고, 시공사(사장 전재국)는 경전시리즈 <마하박가>(유장대, 전3권), <정선아함경>(전3권)을 올 상반기중 펴낸다.

여시아문(사장 김광삼)은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조권), <붓다차리타>(정태혁), <보르헤스불교강의>(김홍근) 등을 출간한다.


운주사(사장 임희근)와 불교시대사(사장 김병우)는 경제사정여하에 따라 출판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불교출판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꼭 필요한 책 아니면 내지 말고, 상품성과 질적 성장을 적절히 배치시킨 좋은 불서를 펴내는 길만이 살 길!"이라며 불황타개를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생활속의 불교 전재성 편저

빠알리어 대장경서 간추린 생활수행



<생활속의 불교>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남방불교권에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불경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형 그대로 담겨있는 <빠알리어 대장경>에서 생활인을 위한 가르침을 가려내 간결하게 해설한 것이다.


남방불교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불문과 삼귀의 오계의 참뜻, 그리고 생활속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과 꼭 알아야 할 기초 교리를 비롯해 불자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인도철학과 범어학을 전공하고 현재 한국빠알리어불교성전학회 회장이기도 한 전재성씨가 펴낸 이 책은 유익한 생활의 지침이 될 것이다. <이바지 3천5백원>

화제의 책

한국종교연구사 한국종교학회 지음

해방후 전통종교 현황과 발달사 조명



광복후 한국종교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해방후 50년 한국종교 연구서>는 이러한 물음에 충실한 답을 해준다.

이 책은 한국종교학회에서 2년간 기획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학회발표와 수정을 통해 모아진 글들을 정리한 것이다.

불교·도교·천주교·개신교·유교·신종교·무교·고대종교·인도종교 등 전통종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종교사회·종교철학·비교종교 등 종교이론의 발달사까지를 조명했다.

이같은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종교관 형성에 개입종교 전통이 미친 영향까지도 살펴보고 있다. 해방이후 처음으로 한국종교연구의 변천을 짚어낸 이 책은 한국종교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창 1만5천원>

◇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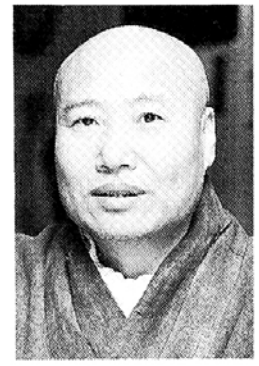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2	부드러운 발 한마디 미묘한 향연이다	일 타	효 립
3	가슴을 찌르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4	완하는대로 이루는 기도의 법칙	박 해 원	정신세계사
5	마음안기 나누기 다루기	용 타	대원정사
6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	윤 창 평	지식산업사
7	금강경대강좌	이 제 열	여시아문
8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9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10	선사 감상사전	지 현	민 족 사

구입문의: (02)737-0695

인터뷰

'이천불교문화' 펴낸 **혜봉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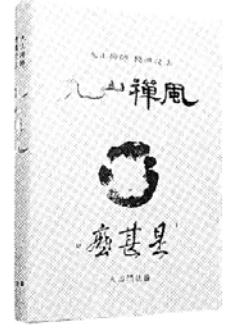
"지역 불교역사·유적 정리 포교이자 문화재 사랑"

임혜봉스님(이천불교사암연합회 총무)이 경기도 이천지역 관내 모든 사찰과 불교역사, 절터, 불상, 탑, 범종, 불교전설, 불교단체 등을 총망라한 <이천불교문화>를 펴냈다. "그동안 전통사찰 중심의 불교문화재, 유적 등을 담은 책들은 다수 선보였지만 지역의 역사와 유물, 유적을 집대성한 책은 보기가 힘들었지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이같은 불교문화유적들을 정리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이천지역불교의 모든 것을 책으로 내놓게 됐습니다"고 혜봉스님은 말했다. 스님은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삼국유사> <삼국사기> <동국여지승람> 등 고문헌에서부터 각지역의 읍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간된 <한국사찰보감>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문헌연구와 철저한 현장조사까지 실시하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진까지 직접 찍었다. 이 책에는 이천지역의 불교현황이 시대별로 정리돼 있으며, 각 사찰의 현황과 신홍사 입성식 불 등 새로 발견된 불교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담겨 있다. 이천불교사암연합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문화활동에 불교계의 대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는 스님은 "(이천불교문화)를 필두로 각 지역의 불교역사와 문화재들이 하루빨리 정리 연구돼, 성보문화재 사랑과 지역포교활동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혜봉스님은 이같은 바람을 기원하며 정국의 사암연합회에 <이천불교문화>를 무료로 보낼 계획이다. <은>

구산선사 법어집 '구산선풍' 발간

수기설법 64편 담아... 부록 7바라밀 법문'

송광사에서 출가해 승보총합 송광사 조계종림의 초대방장을 지내며 일생동안 정정당한 계행과 엄격한 수행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한국불교의 대선지식 구산선사(九山禪師, 1910~1983)의 열반 14주기를 기념하는 법어집 <구산선풍>(불일출판사)이 발간됐다. 스님의 상담법어집인 <구산선문>에 이어 출간된 이 책에는 80년부터 82년까지 미국과 동남아, 유럽 각국을 순방하면서 해외교민과 불자들,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해 설하신 61편의 주옥같은 수기설법이 실려 있다. 철저한 수행인으로 살아갔던 위대한 사상이 그대로 담겨있는 이 책을 통해 스님은 깨달음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이 자기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부록으로 스님이 늘 주창했던 '생활불교의 길'인 <7바라밀 법문>과 행



1월 명저자 특판전 책방 여시아문

책방 여시아문은 1월 기획 '명저자특별판매전'을 마련, '광덕·무비스님의 명상언어' <무비스님의 불교공부> <화엄경강의> <반야심경강의> <보현원원종강의> <빛의 목소리> 등 두 스님의 법어집과, 불교교리서, 수상록 등 20여종의 책을 소개한다. 한편 여시아문은 1월말까지 <성철스님 법어집 11권>을 구입하는 전고객에게 '스님, 성철스님' 비디오를 증정한다. (02)737-0695

새로운 책

▲**높은 산 깊은 물=소설 <높은 산 깊은 물>**은 불교문학상 수상작가 김지훈씨가 그동안 발표한 작품 가운데 중단편 8편을 골라 펴낸 창작집이다. 암울한 시대의 짙은 비극적 삶을 불심으로 치유하려는 강한 작가의식이 표출돼 있다. 불림사, 추태암, 미타암 등 소설에 등장하는 수많은 절이 삶의 터전이 되고, 불경과 불심이 작품의 기저에 깔려 있다. <종은글 6천5백원>

▲**선계에 가고 싶다=**깨달음의 세계, 신비의 세계를 찾아 호흡수련, 기공수련, 화두참선 등 갖가지 수행과 스승을 찾아 나섰던 방송작가 문화영씨가 자신의 선도수련 과정을 일기형식으로 엮은 것이다. <초록 1만원>

▲**노을이 비친 교실=**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이자 동화작가인 곽종분씨가 35년간의 교직생활에서 느끼고 겪었던 사연들을 묶어 낸 책. '인사성을 길러주기위하여' '꼬마들



의 보람과 더불어' '한의사가 된 제자' 등 우리사회의 새싹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활하며 보람을 느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현대사원경영정보편람=**나날이 발전하는 현대 정보사회에서 흥수처럼 밀려오는 사원경영정보를 체계화 사원경영자는 물론 불교계 종사자들이 편리하고 쉽게 각종 교계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 책이다. 각 종단과 교유기관, 복지단체, 불교서점 등을 비롯 주요사원과 단체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지역별로 수록했다. <정우서적 1만원>

· 김병관 칼럼中 · **어둠을 거처서 오는 새벽** - 대통령의 새로운 철학 -

고2년생인 작은 아들놈 친구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아버지는 실적을 하고 엄마와 함께 어렸던 사느 길을 찾아야 할 터인데 그나마 일할 자리마저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것만 같다. '밤새 안녕하시오'하던 우리식 인사말을 요즘은 주저없이 꺼낼 수가 없다. 하룻밤 사이의 안부를 걱정하게 만드는 하루살이식 정척들이 수천만 동포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다. 하루는 커녕 거의 매 순간마다 마치 미지경이 널빤듯 하는 환율 등락과 충격적인 현안들이 우리를 망연자실케 해온 연말이었다.

대통령당선자는 그들이 신주단지처럼 고집하던 근로자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궁극엔 손바닥을 뒤집듯 방향전환을 하고 말았다. 물론 용이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진실로 공약(公約)을 위한 공약(空約)이 아니었다면 심히 괴롭고 무참한 심경이었을 게다.

하필이면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약속어음이 공수표가 되어 버렸으니 정작 얼마나 황당했는지 짐작도 짐작된다. 이제 는 인기를 먹고 사는 야당부사가 아니라 5천만 동포의 운명을 양 어깨에 걸머진 국가 경영자로서 변신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는 승자즉에 보내어 할 갈채 대신, 연민을 불려일으키는 유례없는 현상의 민심이고 불행한 일치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같은 괴이력은 이상기류를 단정자측이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 지가 문제다. 상처받던 영광이지만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위안을 삼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사상초유의 정권교체를 한 것도 그렇고 게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말이 안보이는 혼란에 맞닥뜨린 것도 자업자득(自業自得)인 면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다.

이에 수 많은 처방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특효약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답답한 나머지 다소 위험한 발상일지도 모르는 생각을 펴자는 해 보았다. 여야가 따르지는 거국일치 체제를 부르짚고는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우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무서운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독재자가 아쉬운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인간이 여든 마위에 끌려다니지 않는 무지같은 의지력과 확고한 철학이 있는 이를테면 검은 것을 회하고 우거도 그것이 우국지심(憂國之心)에서 비롯된 억지라면 그 억지 마저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상형의 독재를 꿈꾸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해 오랫동안 답습해온 주의 주장과 정책의 오류들을 수정하고 해묵은 상투성을 뛰어넘는 혁신적 발상이 과연 모순이긴 한 것일까. 그리하여 빈곤한 철학으로 목소리만 높이는 소수의 권위보다는 말없는 다수의 편에서 서서 국가의 위상을 반석위에 세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순의 역행이겠는가.

로마서를 재조명한 '시오노 나나미'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BC 429년)를 놓고 "민주정치를 움직이는 사람이 반드시 민주주의자일 필요는 없다"고 서술했다. 물론 성공한 독재에 부치는 지언일 것이다.

어설론 지도자가 이끄는 어설론 민주주의는 배를 상으로 오르게 해 놓았을 뿐이다. 나라를 이직에게 이르게 한데 일조한 근로자 문제만 해도 그렇다. 하나를 겨우 걸작해 놓고 둘 혹은 셋씩을 갖도록 한 오류였다. 소경 제왕 잡아 먹듯이 이득인줄 알고 달려놓고 행거기에만 혈안이 된 것이 결국 자기가 서 있는 뿌리까지 해치고 만 결과를 초래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자연의 이법을 깨우쳐 위난을 극복할 도리밖에 없을 것 같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노력한 결과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 만고의 법칙이다. 이것이 바로 부중불감(不中不感)의 진리이고 질량불변의 과학이다.

이같이 무섭고 두려운 세상인줄 모르다보니 잠시 일순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하기도 하고 한탕주의 범죄에 빠져들기도 한다. 실로 가치관의 부재시대에서 오는 불행이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 우주와 우리 모두는 아무 이유없이 합부로 생성된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어떤 미물일지라도 단순히 일회성이거나 거품같은 우연의 존재라면 아마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도 가지도 없는 버려진 공간일 뿐이다.

생명체 모두가 이 무한한 사공을 찾아 인과 공덕을 나누면서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주인공들이다. 우리가 몸소 부딪쳐온 업의 늪밭에 따라 지금 우리가 교차하고 있는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삶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생명의 주인공인 정신이 공허해지면 거품같은 물질은 돌아온 곳으로 회귀되는 것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지금 더이상 경제 과만의 시나리오만 되밟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업보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동안 분에 넘치게 받은 요행은 고맙스런데도 돌려 주어야 한다.

사실 경제적인 부(富)는 참된 길을 가기 위한 낙타의 예비물주머니에 불과한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정신문화가 빈약한 경제 동물들의 말로는 비참했다.

경제침략은 물론 군사침략마저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문화강국의 기치를 드는 것이다. 한민족은 지난 5천년 역사속에서 무려 6백차례의 외침에도 굴하지 않고 역사를 보존해 온 것은 우리의 드높은 기상과 문화의 독창성으로 가능했다.

지난 88올림픽 폐회식에 선보인 강강술래는 세계인을 전율케 했다. 화합의 상징인 원을 추구하고 고통을 선하는 한민족의 정신이 이 우주의 생명을 건강하게 만드는 개척자로 대응비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새물결 가슴쉬는 또 다른 대망의 출발 선상에 서 있다. 새로운 가치가 지배하는 21세기로 새대통령과 함께 당당히 나아가자.

• '바람을 일으키는 나비의 날개짓'의 저자
• 생활체육 배드민턴 서울시연합회장 **김병관**
TEL : 02)3427-3333~4 FAX : 3426-3469

김병관 칼럼 "대통령의 눈물"을 읽고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나비의 날개짓'의 저자 김병관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뜻나기 혁명가, 수도승, 성공한 기업인, 언론인과 문학가로 변신해 오면서 겪어 왔던 산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살찌우고 나라를 구할 희망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코자 합니다.

본 광고를 보다 넓게 지속할 수 있도록 뜻있는 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국민은행 085-21-0476-931 김병관
농협협동조합 803140-56-001816 김병관

김병관의 우주와 인생이야기
바람을 일으키는 나비의 날개짓

도서출판 헤진서관
TEL : 332-0672 / FAX : 335-0698